

##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관한 연구

이 은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첫아기의 출생과 더불어 여성은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 여성이 부모가 된다는 사실은 성인기 사회화 과정의 단계에서 겪게되는 하나의 정상적인 생활사건이며,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 부모 역할을 맡게되는 역할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애정과 온화함으로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지지와 안위를 제공해 주는 표현적, 양육적인 기능을 맡아왔다. 특히 영아기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은 먹여주기,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키기, 옷입혀주기 등 일상적인 돌보기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영아와의 상호작용안에서 온정을 제공해줌으로써 정서적인 만족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Bigner 1986). 그것은 영아의 의존적인 특성 때문에 어머니와의 원만한 상호작용내에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영아의 생존과 안녕은 물론 돌봄의 질에 따라 영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성격 발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Rutter 1979 : Spietz 1945), 영아의 원만한 성장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돌보기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Wachs, Greun 1984).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미숙하고 무력한 영아의 돌봄에 대한 과업, 책임감, 태도를 갖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수유하기, 안아주기, 옷갈아 입히기, 청결히 해주기, 보호해 주기

등 돌보기 활동의 수행에 대한 인지적-근육 조정 기술(cognitive-motor skill)요소와 아기의 바램이나 욕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것들을 인지하며 아기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인지적-정의적 기술(cognitive-affective skill)요소를 충분히 조화시켜나가야 한다. 이 두가지 요소의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머니 역할의 수행에 대한 슬선감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해 긍정적인 모아관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기의 안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에게는 어머니 역할의 수행에 대한 어려움, 스트레스, 불만족을 갖게한다(Bobak, 1989).

어머니 역할은 학습을 통해서 획득되어진다(Rubin 1967a).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머니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나 어머니 역할을 학습하려고 노력하며, 적절한 지지를 받게 될 경우 어머니 역할을 원만히 학습하여 자녀를 능숙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학습은 1) 어린시절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어질 때부터 자신이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하나 2) 임신이 되고 장차 자신이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며 3) 영아출생과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규범화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점진적으로 획득한다.

어머니 역할의 획득은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확립이며(Rubin, 1967b), 이 정체감은 임신이 된 후 장차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하여, 산욕기 말쯤 확고해지며 계속적으로 증진되어 간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그러나 Mercer(1981a)는 어머니 역할 획득을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확립에 그치지 않고 그 정체감에 알맞는 행동을 통합시켜 어머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영아기 동안 어머니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어머니 역할의 획득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실증적인 지표임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모성의 경우 분만 4-6주 경에는 어머니 역할을 어느정도 획득하여 어머니 역할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다(Reeder 1987). 문제는 어머니 역할이 사회, 문화적으로 규범화된 것 일지라도 학습을 통해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는 수준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동안 작용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어머니 개인에 따라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는 정도가 다양하고 그 수행 정도 역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 획득의 정도를 사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어머니의 자아개념(이미라, 조정호, 1990), 산육기 산모의 관심사(박영숙, 조소영, 1990; 이숙희, 1991), 모성기의 스트레스, 갈등, 만족(이혜란, 1984; 하영수, 정금희, 김신정, 1990), 애착행위(심미정, 1984; 이자형, 김진향, 1981), 모아상호작용(김태임, 1991; 이은숙, 1987; 조미영, 1988; 한경자, 1986), 어머니 역할인식 및 달성(박재순, 최의순, 1981; 이경혜, 1982; 이미라, 1982), 심신장애아의 어머니 역할획득(서미혜, 1984)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 20년전부터 어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이후 어머니 역할의 획득(Mercer, 1981a, b, 1985a, b; Rubin, 1984; Walker et al, 1981)과 역할 수행(Crow, Fawcett, Wright, 1980; Kennell, Klaus, 1981; Bampton et al, 1981; Julian, 1983; Mercer, 1985)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어머니 역할의 획득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의 획득이 어느정도 확고하게 확립되어진다는(Rubin, 1967) 산육기 동안의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 및 획득과 관련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특히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모성에게 원활한 어머니 역할획득을 도모해주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것은 초산모의 경우 처음으로 어머니 역할을 맡게됨에 따라 태어난 영아와의 정서적 관계 확립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수행해왔던 일련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합시키기 위해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되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약간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Cronewett and Wilson 1981; Cronewett, 1985; Majewski, 1986).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육기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 및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의 획득과 대상자의 구조적(인구학적, 산과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문제진술

- 1) 산육기 초(산후 3일)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은 어떠한가?
- 2) 산육기 말(산후 4-6주)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은 어떠한가?
- 3) 산육기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은 대상자의 인구학적(연령, 학력, 경제상태, 결혼기간, 양육경험), 산과적 특성(임신지속희망, 산전진찰횟수, 태아모습상상, 영아성별 및 체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연구가설

- 1) 산후 3일과 산후 4-6주째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산육기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산과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 역할 획득: 어머니의 위치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 적합한 행위, 특성, 이에 대한 가

치관을 지니게 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긍지와 위치를 굳혀나가는 과정(Rubin 1984)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역할 획득과 관계되는 개념인 어머니 정체감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점수를 말한다.

2) 어머니 정체감 : 어머니 자신의 자아시스템 안으로 임신 경험을 결합시켜 자신의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순화시키고, 희망한 특성이나 바람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의지적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Rubin 1984)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로서 나와 아기인 너에 대한 개념의 평가적 영역 Semantic Differential(SD) 점수를 말한다.

3)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 어머니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기신뢰나 자기 효능감으로(Bandura 1982)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초 어머니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육적 역할인 신체적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는 Pharis self confidence 특점 점수를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역할에 대한 접근은 Mead에서부터 시작한다. Mead(1952)는 Mind, Self and Society라는 저서를 통하여 사회가 정신과 자아를 결정 지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자아는 역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회와 개인간의 연관을 개념화 하였다. 그러나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모양지워 주는가에 대해 만족스런 해결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Parsons, Morend, Linton 등은 자아에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역할이론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역할은 학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 사회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문화적, 규범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태도 2) 사회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 자신이 타인들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가치 및 행동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내용 3)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의 실제적 행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역할이론은 크게 기능 구조주의적 접근과 상호작용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양분될 수 있다. 기능 구조주의적 입장은 사회를 개인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속에서 구조적으로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치들이나 지위들의 한 그물망으로 보고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 구

조적 현상과 연결시킨다. 이에 반해 상호작용주의적 입장은 사회의 직위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인과 그의 특정한 행동과 결부시켜 역할을 인간 행동 매트릭스(person-behavior matrix)로 보며(Thomas & Biddle, 1966), 특히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주고 받음(give and take)이라고 본다.

기능 구조적 입장에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를 사회체제내에서 직위를 점유하는 자로서, 규정적인 역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반해 상호작용주의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what we do)과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what other does)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관점(perspectives)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본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결정적이며, 수량화, 예측화 할 수 있는 요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현상학적인 질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고도로 주관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양상에 관심을 둔다.

상호작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대의 이론가들은 역할의 행동 양상이 역할인식(role perception)과 역할시행(role enactment)의 두 단계를 통해 형성되어지나 개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드러난 행동의 다양성은 내적 과정-역할기대에 대한 자아해석과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 때문으로 간주한다(Sarbin, 1968).

역할이 개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이같은 주장은 종래의 서술적인 역할이론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역할기대와 드러난 행동간의 상호 관계성에서 개인의 내적 과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1) 개인의 욕구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내면화 되어온 정도 2) 특수한 일련의 기대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에 의해 인지되는 정도 3) 개인 등에 대한 자아 평가의 정도로 개념화하여 역할 이론의 개념들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상호작용주의적 입장의 역할 이론가인 Heiss(1976)는 타인의 태도와 의사(opinion)를 내면화함으로써 발달되는 평가적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역할 수행을 증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주의적 견지에서 역할이론을 모성간호학 측면의 어머니 역할에 관련지워 처음 시도한 사람은 Rubin(1967 a, 1967 b)이다.

Rubin(1967 a, 1967 b)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토대로 임신한 부인들의 어머니 역할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 역할 획득을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확립으로 보았다.

즉, 어머니 정체감의 확립은 근본적으로 과거의 임신이나 분만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정체감 형성이 시작되어지는 시기는 임신과 함께 새로이 시작된다. 어머니 정체감은 모방(mimicry), 역할극 놀이(role play), 환상(fantasy), 투입-투사-거절/승인(introjection-projection-rejection/acceptance) 등의 기전을 사용함으로써 반복(Replication), 환상(Fantasy), 판별(Differentiation) 과정을 통해 확립된다. 즉 임신, 분만, 산욕기간 동안에 초산모는 모방, 역할극 놀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가나 자신의 상황과 같은 상황을 겪은자의 조언, 실무, 관습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시도(trying-on)한다. 이때 가장 강력한 모델은 친정 어머니이며, 어머니가 되려는 바람직한 요소는 모방, 역할극 놀이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어머니의 자아상과 신체상에 일치되도록 인지과정을 조절한다.

또한, 초산모는 환상 속에서 어머니 역할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환상이란 아기와 어머니 자신을 위한 바램이며, 어머니 자신과 아기가 서로 결합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머니 자신과 자신의 이미지를 미래 속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 중에는 제삼자가 개입되지 않고 자신과 아기와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질 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탐색이 이루어지고, 장차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how it will be)는 환상속에서 아기와의 결합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서적 유대, 지금까지 말아온 역할내에서 책임이나 관여의 정도, 자신의 열망 등을 재조정 하게 된다.

초산모는 그러나 반복과정을 통해 계속 받아들인 이상적인 요소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현재 자신의 자아상에 적합한 것인지 알아본다. 어머니는 이 판별 과정 동안 새로운 모델이나 요소들을 자신에게 투입하거나 그러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지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며 자아의 일부분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일치된 새로운 요소들만을 받아들이는(acceptance/rejection) 결정을 한다.

Rubin에 따르면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임신이 된 후 장차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며 분만 후에는 영아가 무엇을 바라는지 예상되는 것을 알게됨에 따라 첫 해 동안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확고해져 간다.

어머니 정체감이 완전히 성숙해지면 어머니는 자신 스스로 어머니임을 인정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수긍하는 가운데,

자녀를 분신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 자녀를 조건없이 받아들이며 어머니가 알고 있는 현재의 시점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과 아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는 보통 분만한지 한달째인 신생아기 말에 일어나며 이때 어머니는 '나에 관련된 나', '나에 관련된 너'와의 관계에서 "너"의 위치를 결정할수 있게 되고 아기의 외모와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어머니로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행하여야 되는지 알게되며 보충적인 두 개체의 공동체(weness)안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어머니됨(Becoming a mother)은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타자와의 관계안에서 택하게 되는 역할 맡기와는 달리 역동적인 개체안에서 원만한 기능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Rubin(1967 a, 1967 b)은 특히 미지의 태아와 관계 형성이요구되는 역동적인 개체안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고 개체의 기능적인 평형을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이며(who one is) 무엇을 맡아야 할 것인지(what one is about)에 대한 정체감을 제공하여 주는 자아개념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한편 최근 상호작용주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어머니 역할을 연구한 Mercer(1985 a, 1986)는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어머니 자신 및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나타난 인지적-정적 측면의 정체감 확립에 그치지 않고 확립된 정체감에 알맞는 행동을 확립된 역할 세트 안에 통합시키는 가운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을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어머니 역할 획득을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 형성됨에 따라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았던 Rubin과는 달리 Mercer는 어머니 역할 획득은 모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실증적인 지표는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영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어머니 역할의 대부분은 영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아의 신체적 건강과 안위에 관련된 돌보기 활동에 속하기 때문이다.

Mercer(1981)는 문헌고찰을 통해 어머니 역할에 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면서 어머니 역할획득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변인으로 어머니 연령, 출산경험에 대한 지각, 자아개념 및 성격, 어머니측의 질환, 양육에 대한 태도, 영아의 기질, 영아측의 질환, 모아 조기분리, 사회적 스트레스, 지지체계,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1985 a) 어머니가 역할을 획득하여 나가는 과정을 Thronton과 Nardi(1975)의 역할 획득모형과 관련하여 어머니 역할 획득을 예상적

단계(anticipatory stage), 공식적 단계(formal stage), 비공식적단계(informal stage), 개인적 단계(personal stage) 등 4단계로 구체화시켰다. 즉, 첫째) 예상적 단계는 어머니가 임신시절 가정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 행동을 관찰한 것이 기초가 될 수 있으나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환상을 하고 태아와 자신을 관련시키며 역할극(role play)을 시작하는 시기, 둘째) 공식적 단계는 영아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며 어머니 역할의 파트너인 영아를 확인하고 영아를 돌보는 과업을 맡기 시작하며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때 타인의 지시와 규율을 엄격히 따르는 시기, 셋째) 비공식적 단계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때 타인의 지시와 규율을 엄격히 따르는 시기에서 자신의 역할 행동을 발전시켜 적응하기 시작한 시기 마지막으로 개인적 단계는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 역할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며 그 역할에 자신을 조화시켜 어머니 역할 수행에 일치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Mercer는 분만후 일년동안의 어머니 역할획득 과정을 조사하여 어머니 역할에 대한 내면화- 어머니로서의 결정에 편안하고 자신이 정말로 어머니가 되었음을 느낌- 발생시기가 2주(33%), 2개월(49%), 4개월(64%), 9개월(85%)이며,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연령과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Rubin(1967 a, 1967 b, 1984)은 어머니 역할 획득을 정체감 확립으로 인지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Mercer(1985 a)는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합시킴으로서 내면화되어지는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어머니 정체감과 어머니 역할의 내면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여 정체감과 내면화를 거의 동의적으로 사용하였다(Rubin, 1967 a ; Mercer, 1981). 반면 Walker, Crain, & Thompson은 (1986) 어머니 역할 획득의 관계개념을 모아관계의 인지적-정의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어머니 정체감과 인지적-근육 조정 기술 요소인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구분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욕기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Rubin(1961)이 제시한 분만 후 심리상태 변화과정에 근거, 출산후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상태로 되어가는 산후 3일에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후,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변화된 신체적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되고 영아를 돌보는 패턴이 어느정도 확립되는 산후 4-6주시 가정방문을 하여 재조사하였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1989년 11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광주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종합병원, 2개 개인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 230명중 1) 기혼의 건강한 모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2) 임신과 분만중 또는 분만후 합병증 증상이 없으며, 3) 재태기간 38주 이상의 정상아를 자연분만하고, 4) 입원을 요하는 영아의 질환이 없이 5)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를 약속한 초산모 17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1차조사후 영아사망, 모·영아측의 질환으로 인한 입원, 산후 몸조리 후 약속 예정시일보다 조기출타, 2차 조사시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86명(탈락율 48.9%)을 제외한 9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어머니 정체감 측정 도구

어머니 정체감은 Semantic Differential(SD)scale에 의해 어머니로서나(SD-SELF)와 우리 아기인 너(SD-BABY)에 대한 개념의 평가적인 영역을 Walker(1980)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어머니로서 나(SD-SELF) : Walker(1980)는 모자 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한 104명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로서 나에 대한 개념이 뜻하는 형용사를 서로 반대어가 되는 낱말로 짝을 지워 양극에 대립적으로 위치케한 척도를 사용하여 22개 형용사의 7점 척도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2점에서 최고 154점이며 점수의 합이 높은 경우 "어머니로서 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 도구의 신뢰도로서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는 .81~.85이었다(Walker, 1982).

우리아기(SD-BABY) : Walker(1980)가 SD-SELF를 개발한 대상자로부터 우리 아기에 대한 개념의 평가적인 영역을 측정된 결과 21개 형용사의 7점 척도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의 득점 범위는 최저 21점에서 최고 147점이며 측정결과 높은 점수는 자신의 아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타나낸다. 이 도구의 신뢰도로서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는 .64~.77이었으며, 이 도구와 신생아 감지도(NPI)를 사용하여 측정된 영아에 대한 어려움의 인지정도와는 역상관( $r_s = -.49$  to  $-.60$ )을 보였다(Walker, 1980, 1982).

#### 2) 어머니 역할의 자신감 측정도구

일상적인 영아 돌보기 활동과 관련된 13개 문항의 5점 척도로 Pharis(197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득점 범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까지이며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준다. Walker(1982)는 이 도구의 신뢰도로서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를 .77~.91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신뢰 계수는 .82~.85(1, 2차)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89년 11월 13일부터 1990년 2월 10일까지였다. 정상아를 자연분만 산모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퇴원 당일(산후 3일)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케 하였다. 그후 4~6주 사이 가정방문을 통해 재조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케 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를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초산모의 일반적 사항과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고, 산후 3일 및 산후 4~6주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수준변화는 Paired t-검정을, 그리고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과 대상자의 구조적 특성과의 관계는 t-검정과 ANOVA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이 되었던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경제적 상태, 가족형태, 직업, 영아 양육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였다.

초산모의 연령 분포를 보면 25~29세가 4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24세가 36.6%, 30~34세가 17.8%이었다. 학력수준은 고졸이 48.9%로 가장 많았고 대졸 28.9%, 중졸 22.2%의 순위였으며, 경제적 상태로는 반수 이상(56.7%)이 중위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하위군(22.2%), 상위군의 순위(21.1%)로 적었다.

가족형태는 반수이상(60.0%)이 핵가족이었고 확대가족은 40.0%이었으며, 결혼기간 분포로는 1년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년이 41.1%, 2~3년이 15.6%이었다. 직업상태는 대다수(75.6%)가 가정주부로서 다른 직종을 갖지 않았으며, 또한 대상자중 23.3%만이 아기 돌보기 활동(예 : 조카 또는 친척의 아이들 돌봄)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표 1).

〈표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인원(%)
연령	20-24세	33(36.6)
	25-29세	41(45.6)
	30-34세	16(17.8)
학력	중졸	20(22.2)
	고졸	44(48.9)
	대졸이상	26(28.9)
경제상태	하	20(22.2)
	중	51(56.7)
	상	19(21.1)
가족형태	핵가족	54(60.0)
	확대가족	36(40.0)
결혼기간	1년 미만	39(43.3)
	1년-2년	37(41.1)
	2년-3년	14(15.6)
직업	유	22(24.4)
	무	68(75.6)
영아양육경험	유	21(23.3)
	무	69(76.7)
계		90(100.0)

〈표 2〉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

특성	구분	인원(%)
임신경험횟수	1회	59(65.6)
	2회	20(22.2)
	3회	8( 8.9)
	4회	3( 3.3)
산전진찰횟수	1-5회	22(24.4)
	6-10회	49(54.4)
	11-15회	9(21.2)
임신지속	원함	75(83.3)
	원하지 않음	15(16.7)
태아모습상상	함	74(82.2)
	전혀안함	16(17.8)
신생아 성별	남아	52(57.8)
	여아	38(42.2)
출생시체중	3.0kg 이하	15(16.7)
	3.1~3.5kg	47(52.2)
	3.6~4.0kg	23(25.6)
	4.1kg 이상	5( 5.5)
재태기간	38~40주	57(62.2)
	41~42주	23(31.1)
	43주이상	6( 6.7)
계		90(100.0)

2) 초산모의 산과적 특성

조사대상의 초산모가 임신을 경험한 횟수는 1회에서 4회까지였다. 이중 다수(65.6%)가 첫번째 임신으로 분만 경험이 없었다. 임신기간중 산전 진찰 횟수는 3회에서 15회까지였으며 이중 6~10회가 54.4%로 가장 많았고, 1~5회가 24.4%, 11~15회가 21.2%를 나타냈다.

한편 초산모의 임신 지속 희망여부, 태아의 성에 대한 기대 및 태아 모습을 상상한 경험의 유무를 알아본 결과 대다수(83.3%)가 임신을 지속시켜 분만을 원하였으며 분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소수(16.7%)였다. 임신기간중 태아모습을 상상한 경험유무에서는 초산모의 대부분(82.2%)이 태아의 모습을 상상하였고 상상하지 않는 경우는 소수(17.8%)였다.

초산모가 분만한 신생아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아(57.8%)가 여아(42.2%)보다 훨씬 더 많았다. 출생시 체중은 최저 2.8kg에서 최고 4.7kg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이중 3.1~3.5kg가 5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6~4.0kg(25.6%), 3.0kg미만(16.7%), 4.1kg이상(5.5%)의 순이었다. 재태기간은 임신 38주에서 43주까지의 범위였으며, 이중 38~40주가 과반수 이상(6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1~42주는 31.1%로 적었다(표 2).

2. 산육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

산육기간동안 초산모가 획득한 어머니 역할의 수준 및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 역할 획득의 관계개념인 '어머니로서 나'와 '우리아기'에 대한 의미미분 점수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점수의 평균을 조사 비교하였다.

산후 3일째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108.7점, '우리아기'는 108.2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51.1점이었으며, 이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70.6점, '우리아기'는 73.6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78.6점으로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산후 4~6주째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111.4점, '우리아기'는 114.4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56.5점이었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어머니로서 나'는 72.8점, '우리아기'는 77.9점, '어머니 역할에 대

한 자신감'은 86.9점으로 어머니 역할획득의 수준은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3일째 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초산모가 산육기 동안 어머니 역할을 획득한 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후 3일과 산후 4~6주째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를 비교해보면 '어머니로서나'(산후 3일 : 108.7점, 산후 4~6주 : 111.4점,  $t=-2.09$   $P<.05$ ), '우리아기'(산후3일 : 108.2점, 산후 4~6

주 : 114.4점,  $t=-4.12$   $P<.001$ ),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산후 3일 : 51.1점 산후 4~6주 : 56.5점,  $t=-6.59$   $P<.001$ ) 모두 산후 3일에 비해 산후 4~6주시의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산후 3일과 산후 4~6주째 어머니 역할획득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제1가설은 채택되었다(표 3참조).

〈표 3〉 산육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 개념 점수

	산후 3일		산후 4~6주		paired-t값
	범위	mean(SD)	범위	mean(SD)	
어머니로서나	67-145	108.7(15.9)	75-140	114.4(15.1)	-2.09*
우리아기	80-141	108.2(14.8)	75-139	114.4(13.0)	-4.12**
자신감	30-56	51.1(8.0)	37-62	56.5(7.9)	-6.59**

\* $P<.05$       \*\* $P<.001$

### 3. 산육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 개념 점수와 구조적 변수와의 관계

산후 4~6주째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와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경제적 상태, 결혼기간, 아기 양육경험)과 산과적 특성(임신 지속의 희망, 태아모습 상상, 산전진찰 횟수, 영아의 성별, 출생시 체중, 재태기간)등의 구조적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중 연령과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와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나'는 20~24세군(113.2점)과 25~29세군(112.2점)이 30세 이상군(105.3점)보다 높은 득점을 보였고 '우리아기'에서는 25~29세군(114.9점)과 20~24세군(113.8점)이 30세 이상군(111.0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20~24세군(59.5점), 25~29세군(55.9점), 30세 이상군(50.7점)의 순으로 연령군간에 유의한( $F=3.627$   $P<.05$ ) 점수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높았다.

학력 및 경제적 상태와 어머니 역할 획득과의 관계를 보면 학력의 경우 '어머니로서나'는 고졸군(115.3점), 대졸군(111.7점), 중졸군(105.0)의 순이었고, '우리아기'도 고졸군(115.3점), 대졸군(114.9점), 중졸군(108.5점)의 순이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역시 고졸군(58.5점), 대졸군(55.2점), 중졸군(49.5점)의 순으

로 학력에 따른 유의한( $F=7.433$   $P<.005$ ) 차이를 보였다. 학력과의 관계에서는 고졸 이상군이 중졸 이하군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높았다.

반면 경제적 상태와의 관계의 경우 '어머니로서나'는 중위군(112.4점), 상위군(105.0점), 하위군(107.3점)의 순이었고, '우리아기'는 하위군(116.5점), 중위군(113.2점), 상위군(107.4점)의 순이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상위군(57.2점), 중위군(55.8점), 하위군(55.6점)의 순이었으나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혼 생활 기간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나'는 1~2년군(114.6점), 2~3년군(113.4점), 1년 미만군(108.4점)의 순이었고, '우리아기'도 1~2년군(117.3점), 2~3년군(115.7점), 1년 미만군(108.4점)의 순이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2~3년군(59.9점), 1~2년군(57.3점), 1년 미만군(55.2점)의 순이었다. 결혼생활 기간과의 관계에서는 결혼 생활 1년 이상의 경우가 1년 미만의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였다.

아기 양육 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나'는 아기양육을 경험한군(113.4점)과 경험이 없는군(111.1점)이 거의 비슷하였고, '우리아기'도 경험군(113.8점)과 경험이 없는군(114.5점)이 동일하였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역시 경험군(56.2점)과 경험이 없는군(56.5점)이 동일하였다. 아기양육경험과의 관계에서는 경험유무에 따른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산과적 특성중 임신지속의 희망 유무와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지속을 희망한 군(120.8점)이 희망하지 않는군(110.0점)보다 훨씬 더 높았고( $t=2.26 P<.05$ ), ‘우리아기’도 임신지속을 희망한군(122.0점)이 희망하지 않는군(113.3점)보다 더 높았으며( $t=2.12 P<.05$ ),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역시 임신을 희망한군(60.5점)이 희망하지 않는군(55.9점)보다 높았다( $t=2.08 P<.05$ ). 임신지속의 희망과의 관계에서는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의 지속을 희망한 군이 희망하지 않는군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 개념 점수가 더 높았다.

태아모습의 상상유무와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태아모습을 상상한군(112.9점)이 상상하지 않는군(88.8점)보다 훨씬 더 높았고( $t=4.07 P<.001$ ), ‘우리아기’도 상상한군(115.6점)이 상상하지 않는군(96.7점)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t=3.68, P<.001$ ), ‘어머니 역할

에 대한 자신감’ 또한 상상한군(56.7점)이 상상하지 않는군(53.3점)보다 다소 더 높았다. 태아모습의 상상유무와의 관계에서는 임신기간중 태아모습을 상상한군이 상상하지 않았던군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더 높았다.

산전진찰 횟수와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11~15회군(121.4점), 6~10회군(112.3점), 1~5회군(109.0점)의 순이었고, ‘우리아기’도 11~15회군(122.5점), 6~10회군(115.3점), 1~5회군(112.3점)의 순이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또한 11~15회군(63.0점), 6~10회군(56.2점), 1~5회(56.1점)의 순이었다. 산전진찰 횟수와의 관계에서는 산전진찰 횟수에 따른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임신기간 중 산전진찰을 10회 이상 받았던 군이 10회 미만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경향이었다. 그리고 영아의 특성 중 영아의 성별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여아인 경우(113.5점)가

〈표 4〉 구조적 특성에 따른 산육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

구조적 변수	구분	인수(%)	어머니로서 나	t or F값	우리아기	t or F값	자신감	t or F값
연령	20-24세	33(36.6)	113.2(17.0)		113.8(17.5)		59.5(7.9)	
	25-29세	41(45.6)	111.2(14.5)	F= .642	114.9(11.1)	F= .266	55.9(7.4)	F=3.627*
	30세이상	16(17.8)	105.3(15.4)		111.0(12.2)		50.7(9.6)	
학력	중졸	20(22.2)	105.0(13.3)		108.5(10.9)		49.5(5.3)	
	고졸	44(48.9)	112.5(14.9)	F=1.120	115.3(14.5)	F=1.308	58.5(8.2)	F=7.433**
	대졸	26(28.9)	111.7(16.3)		114.9( 9.7)		55.2(6.1)	
경제상태	하	20(22.2)	107.3(14.4)		116.5(12.6)		55.6(8.5)	
	중	51(56.7)	112.4(15.6)	F= .772	113.2(12.2)	F=1.229	55.8(5.7)	F=.486
	상	19(21.1)	109.1(16.5)		107.4( 9.2)		57.2(4.6)	
결혼기간	1년 미만	39(43.3)	108.4(15.1)		111.7(13.6)		55.2(8.1)	
	1-2년	37(41.1)	114.6(15.2)	F=1.831	117.3(11.0)	F=2.010	57.3(7.4)	F=1.442
	2-3년	14(15.6)	113.4(14.0)		115.7(16.3)		59.9(8.8)	
아기양육 경험	있음	21(23.3)	112.3(14.6)	t = -.31	113.8(13.8)	t = .19	56.2(8.1)	t = .18
	없음	69(76.7)	111.1(15.4)		114.5(12.8)		56.5(7.9)	
임신지속 희망	원함	75(83.3)	120.8(13.3)	t = 2.26*	122.0(13.0)	t = 2.12*	60.5(6.6)	t = 2.08*
	원치않음	15(16.7)	110.0(15.0)		113.3(12.7)		55.9(7.9)	
태아모습 상상	함	74(82.2)	112.9(14.1)	t = 4.07**	115.6(12.4)	t = 3.68**	56.7(7.9)	t = 1.00
	하지않음	16(17.8)	88.8(11.4)		96.7( 6.9)		53.3(8.1)	
산전진찰 횟수	1-5회	22(24.4)	109.0(15.4)		112.3(15.7)		56.1(7.4)	
	6-10회	49(54.4)	112.3(15.2)	F=1.37	115.3(10.7)	F=1.37	56.2(8.2)	F=1.44
	11-15회	19(21.2)	121.0( 4.9)		122.5( 6.4)		63.0(8.2)	t = 2.77*
영아성별	남아	52(57.8)	110.1(14.5)	t = 1.03	113.8(15.5)	t = .51	54.7(7.0)	
	여아	38(42.2)	113.5(15.5)		115.3(11.3)		59.3(7.9)	
출생시체중	3.0kg 이하	15(16.7)	107.5(13.8)		108.3(15.0)		56.6(7.8)	F= .765
	3.1-3.5kg	47(52.2)	113.4(15.9)	F=1.198	116.4(11.0)	F=2.36	57.2(7.9)	
	3.6kg이상	28(31.1)	117.4(14.4)		118.8(12.4)		59.1(8.0)	

\*P<.05

\*\*P<.005

남아인 경우(110.1점)보다 약간 더 높았고, '우리아기'도 여아인 경우(115.3점)가 남아의 경우(113.8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여아인 경우(59.3점)가 남아의 경우(54.7점)보다 훨씬 더 높았다( $t=2.77, P<.05$ ). 영아의 성별과의 관계에서는 여아인 경우가 남아인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더 높았다.

출생시 체중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3.6kg 이상군(117.4점), 3.1~3.5kg군(113.4점), 3.0kg 미만군(107.5점)의 순이었고, '우리아기'도 3.6kg 이상군(118.8점), 3.1~3.5kg군(116.4점), 3.0kg 미만군(108.3점)이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또한 3.6kg 이상군(59.1점), 3.1~3.5kg군(57.2점), 3.0kg 미만군(56.6점)의 순이었다. 출생시 체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점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출생시 체중이 3.0kg 이상인 경우가 3.0kg 미만의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참조>.

이상의 결과에 따라 산육기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산과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제 2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4. 산육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개념들의 상관관계

산육기간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과 관련된 개념들간의 관계 및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안정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산후 3일과 산후 4~6주의 어머니로서 나, 우리아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산후 3일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 개념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와 '우리아기'와의 경우 상관관계수  $r=.5309(P<.001)$  이었고, '어머니로서 나'

와 자신감과의 경우 상관관계수  $r=.4622(P<.001)$  이었으며, '우리아기'와 자신감과의 경우 상관관계수  $r=.3213(P<.001)$  이었다.

산후 4~6주째의 어머니의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 개념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와 '우리아기'의 경우 상관관계수  $r=.6866(P<.001)$  이었고, '어머니로서 나'와 자신감과의 경우 상관관계수  $r=.5174(P<.001)$  이었으며, '우리아기'와 자신감과의 경우 상관관계수  $r=.3676(P<.001)$  으로 유의한 정상관을 보였다.

또한 산후 3일과 산후 4~6주째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 개념들간의 상관 정도를 비교해 보면 산후 4~6주째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관계 개념들간의 상관관계수가 산후 3일의 상관관계수보다 더 높았고,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짐을 보여줌으로써 산육기간 동안 어머니 역할의 획득이 정지되지 않은 채 안정성 있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 V. 논 의

본 연구는 산육기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 수준과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후 3일째와 산후 4~6주째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를 조사, 비교하였고, 산후 4~6주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의 관계개념 점수와 대상자의 구조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후 3일째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어머니 정체감의 핵심 개념인 '어머니로서 나'는 70.6점 '우리아기'는 73.6점으로 어머니 역할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적-정의적 기술 요소의 점수는 매우 낮았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78.6점으로 인지적-근육 조정기술 요소의 점수도 낮아 산육기 초기 초산모가 어머니 역할을 획

<표 5>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개념들의 상관관계

	I	II	III	IV	V
I 어머니로서 나(1)	1.0000				
II 우리아기(1)	.5309**	1.0000			
III 자신감(1)	.4622**	.3213**	1.0000		
IV 어머니로서 나(2)	.6987**	.3976**	.4211**	1.0000	
V 우리아기(2)	.5638**	.4889**	.2468*	.6886**	1.0000
VI 자신감(2)	.3721**	.3010*	.5285**	.5174**	.3676**

(1) : 산후 3일 (2) : 산후 4-6주 \* $p<.05$  \*\* $p<.001$

특한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박영숙(1991)은 초산모의 경우 산후 10일쯤 되어야 아기를 통해 자신이 엄마가 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출산전과 달라져야 됨을 느끼면서 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되나, 일상적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해 잘 몰라 불안감을 갖으며, 어머니 역할에 미숙함을 느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와 122명의 산모(초산모 64명, 경산모 58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 획득을 조사한 Walker, Craign, Thompson(1986 a)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어머니로서 나'(70.6점)와 '우리아기'(73.6점)는 Walker 등이 보고한 '어머니로서 나'(82.3점), '우리아기'(92.1점)의 그것들보다 훨씬 낮았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78.6점)은 Walker 등이 보고한 74.6점보다 약간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초산모가 외국의 초산모에 비해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는 수준이 더 낮은 편이었다. 즉 어머니 역할의 인지적-근육 조정 기술 요소는 다소 나은 편이지만 인지적-정의적 기술 요소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4~6주째 어머니 역할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보면 '어머니로서 나'는 72.8점, '우리아기'는 77.9점으로 산후 3일째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산후 3일과 마찬가지로 인지적-정의적 기술요소는 낮은 편이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86.9점으로 인지적-근육 조정 기술 요소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초산모는 산후 5~8주경 엄마로서 실감을 갖게되며 영아 돌보기 활동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박영숙(1991)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Walker 등이 보고한 '어머니로서 나' 84.9점, '우리아기' 87.8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85.8점과 비교해보면 산후 3일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로서 나'와 '우리아기'에 대한 점수는 훨씬 더 낮았고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점수는 거의 비슷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초산모가 외국의 초산모에 비해 어머니의 역할 획득수준이 낮은 것은 외국에 비해 임신기간동안 안전 분만과 부모되기(becoming a parenthood)를 도와주는 부모교육의 실시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어머니 역할의 인지적-정의적 요소의 획득이 잘 되지 않은 점 역시 교육의 기회 부족인지 아니면 규범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는 면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하겠다.

산욕기 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의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의 변화를 보면 어머니로서 나 ( $t=-2.09$ ,

$P<.05$ ), 우리아기( $t=-4.12$ ,  $P<.001$ ),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t=-6.59$ ,  $P<.001$ ) 모두 산후 3일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Walker(1986 a)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산욕기 동안 어머니 역할 획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산욕기동안 증가된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별 평균점수의 변화를 Walker(1986 a)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경우 우리아기(6.2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5.4점), 어머니로서 나(2.7점) 순이었는데 반해 Walker 등(1986 a)의 경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7.3점), 어머니로서 나(2.0점), 우리아기(-1.6점)의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초산모는 외국의 모성보다 어머니 역할의 인지적-정의적 요소인 '우리아기'가 훨씬 더 증가되었으나, 반면 어머니 역할의 인지적-근육 조정 기술 요소인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외국의 초산모가 더 증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초산모는 어머니 역할의 관계개념 모두 산욕기 동안 증가하였는데 반해 외국의 초산모의 경우 우리아기 점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우리나라 초산모가 외국의 초산모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욕기의 상당한 기간동안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Mercer(1981)가 가족의 지지가 어머니 역할획득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틀과 그 틀을 같이 한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어머니 역할 획득은 임신이후 약 12~15개월동안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산욕기 말에는 어느정도 확고해지고(Rubin, 1984) 자신감을 갖게된다는 Mercer(1986)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

어머니 역할 획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에 관한 관계개념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어머니 역할 획득과 어머니 연령과는 정상관( $r=.27$ ,  $P<.05$ )이 있었다는 Walker(1986 a)의 보고와 달랐다. 그러나 Mercer(1986)는 어머니의 연령이 어머니 역할 획득을 예측해주는 변인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10대의 사춘기 모성은 20대, 30대 모성보다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는데 더 오랜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30대의 경우는 20대보다 어머니 역할에 더 긍정적이고, 어머니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아돌보기 활동을 더 적절히 수행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초산모는 자신이 어머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직장여성이 아님을 느껴 분만후 몇개월 동안 상당한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하며(Pickens, 1982), 어머니가 되기전, 즉 결혼전에는 능력있고 독립적인 자아를 지녔던 여성의 경우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자아가 중단되어버렸다는 감정을 갖게되어 초래되는 산후 우울증의 빈도가 18~26세에 비해 27세 이상의 여성에서 높다는(Uddenberg, 1974) 보고는 본 연구에서 20대가 30대보다 어머니 역할획득 점수가 높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고졸이상군이 고졸이하군에 비해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인식이 높고(이경혜, 1982),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 획득이 높았음( $r=.31$   $P<.05$ )을 보고한 Walker 등(1986 a)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고졸군과 대졸군을 비교해 볼 때 고졸군이 대졸군보다 어머니 정체감의 핵심개념인 어머니로서 나와 우리아기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갈등을 갖으며(Russell, 1976, Stteffensmeir, 1982), 결혼전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한 직장여성이 일반여성보다 분만후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대한 혼돈이 많았다는 보고(Uddenberg, 1974)와 일맥 상통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상태와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상태에 따라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제적 상태와 어머니 역할 획득과 상관이 있다( $r=.39$ ,  $P<.05$ )는 Walker 등의 보고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결혼기간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결혼기간이 1~2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의 결혼기간을 갖은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는 이경혜(198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초산모의 원만한 어머니 역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전임신이나 신혼초기에 임신을 하기보다 어느 정도 결혼 생활에 적응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맡기위해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기양육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양육경험을 갖고 있는 초산모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초산모의 경우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가 거의 비슷하였는데 이는 어머니 역할 획득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임신이 되면 발생하는 생물학적인

변화처럼 분만경험이나 자녀의 양육경험과 관계없이 매 임신시마다 그 아이와의 독특한 상호관계안에서 새로이 발달되어진다는 Rubin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임신지속희망과의 관계에서는 임신을 계획하고 출산을 원한 경우가 원하지 않는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가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어머니 역할 획득은 분만후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보이지 않는 태아와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내에서 '너'와 '나'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어머니로서 해야될 규범, 태도, 가치 등을 학습함으로써 획득된다는 Rubin(1984)의 이론을 지지해 준다. 또한 임신기간이 어머니 역할의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학습기간의 절반정도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지속을 희망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사료되며 계획된 임신과 태교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태아모습의 상상과의 관계를 보면 태아모습을 상상한 초산모가 태아모습을 상상하지 않는 초산모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였다. 이는 임신기간중 어머니 역할 획득을 위한 학습은 주로 모방, 환상, 역할극놀이를 통해 태어나지 않는 태아와의 관계 안에서 어머니 역할을 학습하여 획득한다는 Rubin(1984)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진찰횟수와의 관계에서도 산전진찰을 정규적으로 받았던 경우가 받지 않았던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관계개념점수가 더 높았다. Rubin(1984)은 임신기간 중 어머니는 태아와의 공생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무엇이 자신(what is self)이고 무엇이 아기(what is baby)인지 잘 구분하지 못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아기에게 일어난 것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1) 어머니 자신과 태아가 임신-분만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2) 사회적으로 확고한 인정을 받기 위해 3) 어머니로서 나와 너의 결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4) 서로 주고받는 행동의 의미와 깊이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목적지향적인 과정중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행동과 함께 어머니 정체감이 증진된다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영아의 특성중 출생시 체중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와의 관계에서는 영아의 체중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와 만삭아를 분

만한 어머니 간의 어머니 정체감은 차이가 없다는 보고(권미경, 한경자, 1991)와 일치하였다.

영아의 성별과의 관계에서는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여아의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인지하고 역할전이를 더 쉽게하며(Rubin, 1984) 남아의 어머니인 경우 여아의 어머니보다 영아를 돌보는 기술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결과(Froman, Owen 1990)와 일치하였다.

## VI. 결론 및 제언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수준 및 어머니 역할 획득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후 3일째(1차조사)와 산후 4~6주째(2차조사)의 초산모 90명을 대상으로 Walker(1986 a)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관계개념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 관계개념과 초산모의 인구학적, 산과적 특성과의 관계도 아울러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산후 3일째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득점율(100점 만점)은 어머니로서 나 70.6점, 우리아기 73.6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78.6점으로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 2) 산후 4~6주째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의 득점율은 어머니로서 나 72.8점, 우리아기 77.9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86.9점으로 산후 3일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 3) 산욕기동안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 점수의 변화는 어머니로서 나( $t=2.09, P<.05$ ), 우리아기( $t=-4.12, P<.001$ ),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t=-6.59, P<.001$ )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4) 산후 3일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들과 산후 4~6주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관계개념간의 상관관계는  $r=.24\sim.69$ 의 순상관을 보여, 산욕기동안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은 인지적-정의적 기술요소와 인지적-근육 감각 조정 기술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안정성 있게 증가하였다.

- 5) 어머니 역할 획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20대 초산모가 30대의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이 높았고, 고졸 이상군의 초산모가 중졸 이하의 모성보다 높았다.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의 지속을 희망하며 태아의 모습을 상상한 초산모가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여아를 양육하는 초산모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의 수준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의 획득은 분만후 산욕기 동안 점진적으로 증진되었고, 어머니 역할의 구성요소인 인지적-정의적 기술요소와 인지적-근육 조정기술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초산모의 연령, 교육수준, 임신지속의 희망과 임신중 태아모습의 상상 여부, 영아의 성별은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된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 산욕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
- 2)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적 변인이외의 다변수와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
- 3)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태임(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 수유상황에서의 모아 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미경, 한경자(1991).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정체감 인지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1(1) : 79-88.
-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숙, 조소영(1990). 산욕기 초기동안 정상분만한 산모의 관심사에 대한 연구. 간호학 논문집, 4(1) : 31-43.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 박재순, 최의순(1981). 산욕초기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태도 및 모성역할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최신의학.

- 24(4) : 94-103.
- 서미혜(1984). 심신장애아 어머니의 역할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정상아 어머니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미경(1984). 분만 3기 및 4기 동안 한국문화적 모아애착행위. 대한간호. 23(3) : 77-84.
- 이경혜(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2(2) : 67-79.
- 이미라(1982). 일부 산모들의 모성역할 달성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26 : 205-223.
- 이숙희(1991). 초산모의 분만후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34(4) : 283-296.
- 이은숙(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자형, 김진향(1981). 산모의 신생아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1(2) : 9-19.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1988). 초산모의 분만유형별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모아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하영수, 정금희, 김신정(1990). 어머니 역할획득 과정에서 인지스트레스와 건강생활양식 이행과의 관계. 간호과학. 2 : 23-47.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소.
- 한경자(1986). 한국인 영아 초기수유시 모아상호작용 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igner, J.J(1986).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g.* (11th ed.) McMillian Pub. Co., New York. 57-136.
- Bobak, I.M., Jensen, M.D., and Zalar, M.K.(1989).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 The Nurse and the Family.* C.V. Mosby Co. St. Louis.
- Burr, W.R.(1972). Role transitions : a reformulation of theory. *J. Marriage & Family.* 407-416.
- Cronenwett, L.R.(1985). Parental network structure and perceived support after birth of first child. *Nursing Research.* 34(6) : 347-352.
- Cronenwett, L.R. and Wilson, W.K.(1981).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Nursing Research.* 30(4) : 196-201.
- Crow, R.A., Fawcett, J.N. and Wright, P.(1980). Maternal behavior during breast and bottle feeding. *J. Behavioral Medicine.* 3 : 9-14.
- Froman, R.D., Owen, S.V.(1990). Mothers and nurses perception of infant care skill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3 : 247-253.
- Heiss, J.,(1976). *Family Roles and Interaction : An Anthropology.* (2nd ed). Rand McNally, Chicago.
- Mead, G.H.(1952).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cer, R.T.(1981 a).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 : 73-77.
- Mercer, R.T.(1981 b). Factors impacting on the maternal role the first year of motherhood. *Birth Defects.* 17 : 232-252.
- Mercer, R.T.(1985 a).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 : 198-204.
- Mercer, R.T. (1985 b). Relationship of the birth experience to later mothering behaviors. *J. Nurse-Midwifery.* 30(4) : 204-211.
- Mercer, R.T.(1986). Predictor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at one year post-birth. *Western Journal of Research.* 18(9) : 9-32.
- Pharis, M.E.(1978).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s for Infants and the Parenting Role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 Texas at Austin.
- Pickens, D.S.(1982). The cognitive process of career-oriented primiparous in identity reformulation. *Maternal Child Nursing.* 11 : 135-164.
- Rubin, R.(1961). Puerperal change. *Nursing Outlook.* 9(3) : 743-755.
- Rubin, R.(1967 a).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part I : processes. *Nursing Research.* 16 : 237-245.

- Rubin, R.(1967 b).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part II : models and referants. *Nursing Research*. 16 : 342-346.
- Rubin, R.(1984). *Maternal Identity and the Maternal Experience*. New York : Springer Pub.
- Rutter, M.(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 new findings,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 283-305.
- Russell, C.S., Hobbs, D.F., Cole S.P. (1976). Transition to parenthood :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 Marriage & Family*. 294-301.
- Sarbin, T.R., Allen, V.L.(1968). Role Theory.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ass : Addison-Wesley.
- Spietze, R.A.(1945). Hospitalism and inquiry into the genesis of psychiatric conditions in early childhood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In Abidin, R.R.(Ed.) *Parent Education & Intervention Handbook*. 1 : 53-74.
- Steffensmeier, R.H.(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 Marriage and Family*. 44 : 319-334.
- Thoronton, R., Nardi, P.M.(1975). The dynamics of role acquisition. *Amer J. Sociology*. 80 : 870-885.
- Uddenberg, N.(1974). Reproductive adaptation in mother and daughter. *Acta Psych. Scand*. 254(1) : 1-17.
- Wachs, T.D. and Gruen, G.(1984). Environmental stimulation and early intervention. *Zero to Three*. 6-10.
- Walker, L.O., Crain, H. and Thompson, E.(1986 a).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 : 68-71.
- Walker, L.O., Crain, H. and Thompson, E.(1986 b). Mothering behavior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Nursing Research*. 35 : 352-355.

— Abstract —

## Maternal Role Attainment of Primiparou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Lee, Eun-Sook\*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levels and affecting factors of the maternal role attainment(MRA) in the primipara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The healthy ninety primiparous from the one university hospital and two local clinics in KwangJu city were selected and two Semantic Differential Scales(SD-Myself as Mothers, SD-My Baby) and the Pharis Self Confidence Scale were used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t the 3rd days and the 4-6 weeks of the primiparous not showing any complication after normal delivery.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sed statistically using t-test,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NOVA.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

- 1) On the 3rd day after the delivery, the scores of SD-myself as mother, SD-baby and Pharis Self Confidence were 70.6 points, 73.6 points and 78.6 points, respectively, showing the low level of MRA.
- 2) On the 4-6 weeks after delivery, the score of SD-myself as mother, SD-baby and Pharis Self Confidence were 72.8 points, 77.9 points and 86.9 points, respectively, indicating the moderate level of MRA.
- 3) The mean scores of the SD scale and the Pharis Self Confidence during the postpartum periods

\*Dep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3rd days, showing the SD-myself as mother ( $t = -2.09, P < .05$ ), SD-baby ( $t = -4.12, P < .001$ ), Pharis Self Confidence ( $t = -6.59, P < .001$ ), respectively.

- 4) Positive correlations ( $r = .24 \sim .69$ ) were shown in the concepts related to the MRA, and the cognitive-motor skill components and cognitive-affective skill components of the MRA became harmonious over time.
- 5)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core of the MRA and the demographic and obstetric variables were as follows ;
  - a) the score of the MRA in the twenties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thirties.
  - b) the group with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showed higher MRA scores than the group with lower one.
  - c) those who wanted pregnancy sustenance had higher MRA scores than those who did not.
  - d) the group that did think of fetus-feature represented higher MRA scores than those

who did not.

- e) the group of mothers who have the daughters showed higher MRA scores than those who have boys.

It can be concluded from the results that the MRA in the primiparous increased gradually, and that the cognitive-motor skills and cognitive-affective skills became harmonious over time. The level of the MRA was affected partly by the mothers general, obstetrical variables.

Following suggestion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present study :

- a)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MRA is needed.
- b) Multivariate analyses should be done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MRA.
- c) Education program for primiparous mother should be designed and developed to improve the MRA.